

쑥 추출물이 사염화탄소로 유발된 흰쥐의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  
조혜인, 정세래, 박혜진, 김옥경\*.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생존의 필수 물질인 산소는 체내의 여러 대사 과정에 관여하여 free radical을 만들어 유해 세균의 살균 작용, 노화된 단백질의 제거 등에 이용되지만 과량으로 생산되면 제거 영역을 벗어나 노화나 질병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식용 및 약용 식물 등의 천연물을 통한 free radical 생성 억제 작용에 대한 실험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약쑥(*Artemisia mongolica*)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전초를 말린 것을 애엽 또는 애호라고 부르며 자궁 출혈, 임신중의 출혈, 코피 지혈, 강장 보혈 및 설사 치료제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쑥쑥의 원료로도 쓰여져 왔다. 근래에는 빵, 국수, 라면 및 인조 쌀 등의 가공 식품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한인진(*Artemisia iwayomogi*)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다년생 초본으로써 그 지상부를 건조, 세절하여 간염 예방, 항염증, 담석증 초기 치료, 해열 및 이뇨 목적으로 민간 요법에 주로 쓰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애엽과 한인진을 각각 95% MeOH로 추출하여 그 추출물을 1,000mg/kg, b.w씩 1일 1회 3일간 경구 투여한 후 CCl<sub>4</sub> : Olive oil (3:2)를 1.0mg/kg, b.w씩 복강 주사한 다음 날에 ether 마취하에 개복하여 혈청을 분리하여 Alanin aminotransferase(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kaline phosphatase(ALP),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gamma$ -GT), lactate dehydrogenase(LDH) 활성과 Bilirubin, Triglyceride(TG), Cholesterol 및 HDL-cholesterol 함량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ALT활성은 사염화탄소만을 투여한 군과 비교하여 애엽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인 감소( $p < 0.05$ )를 나타내었으나 한인진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는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AST, ALP, LDH 및  $\gamma$ -GT 활성과 bilirubin 함량은 애엽과 한인진 추출물을 각각 투여한 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한편 지질 대사와 지방간의 중요 지표가 되는 cholesterol과 TG 함량은 애엽과 한인진 추출물을 각각 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인 감소( $p > 0.05$ )를 나타내었고, HDL-cholesterol은 유의적인 증가( $p < 0.05$ )를 나타내어 지질 대사의 개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